

너 자신을 알아라.

All the scriptures tell us one thing: Know thyself. If you have known yourself, you have known everything else. (Sri Swami Satchidananda)

모든 경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한다: 너 자신을 알아. 만일 네가 너를 알게 되면, 다른 것들도 모두 알게 된다.

(스와미 사치다난다)

오늘 아침 우연히 책꽂이에서 최근 작고하신 안병욱 선생님의 수필집 「한 우물을 파라」를 발견했습니다. 내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이라 종이는 누렇게 물든 상태이지만, 그 내용은 내가 이 글을 쓰게 할 만큼 마음을 울립니다.

책을 통하여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“너 지금 한 우물을 제대로 파고 있느냐?, 너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?”라고….

책에서 선생님은 “너 자신을 알아라”를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. 자신 생명의 존엄성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, 자신의 분수와 실력과 밀천과 천분(天分; 타고난 재질이나 직분)을 아는 것이

두 번째이며,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근본이라고 말합니다.

강의를 통해, 글을 통해 나 역시 사람들에게 “자신을 알라”고 이야기하지만, 과연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. 한 우물을 제대로 파고 있는지도 말입니다.

2013년이 40여 일 남아 있습니다. 남은 기간 소중한 나의 생명에 대해, 나만의 독특한 천분에 대해,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인 사명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사색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.